

인태연 “소상공인 생태적 가치 발굴해 정책 지표로 만들 것”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100일 간담회서 혁신구상 공개
소상공인 경제·사회·문화 가치 조명
국민체감 성과경영 3대 방침 제시
5대혁신·6대중점과제로 체질 개선
40차례 간담회… “현장중심 경영”

“(소진공)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 박봉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도 많고 (민원인에게)욕도 많이 먹고 봉급은 낮고 (경영)평가(점수)는 낮다. (공단이)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즈음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자영업비서관을 역임한 인태연 이사장은 올해 1월28일 제5대 소진공 이사장에 취임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소진공

인 이사장은 “난 36년 장사꾼을 했다. 공직에서 보는 현장은 또 달랐다. 장사를 할 땐 내 고통만 보였다. 지금은 아니다. (취임하니)공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체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소상공인을 경제적 효율성이나 일자리 창출 존재로만 봐선 안된다. 그래서 실제 가능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즉

‘소상공인 생태적 가치’를 측정, 발굴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그동안 소상공인은 매출이나 고용 등 경제지표 위주로 평가돼 왔다. 반면 지역사회 안전망·문화거점·공동체 결속 등 사회·문화적 가치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경제활동과정에서 창출하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측정 범위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통합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초안은 빠르면 올해 9월까지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인 이사장은 취임하자마자 판명함의 뒷면에 ‘소상공인의 가치 소진공이 같이 만듭시다’를 새기고 다닌다. 지난 100일의 고민을 담아 ▲국민체감 성과경영 ▲수요기반 현장경영 ▲지속가능 성장경영을 중심으로 한 ‘3대 경영방침’을 세웠다. 5대 기관 혁신 운영 과제와 6대 중점 사업 과제가 포함된 소상공인과 소진공의 ‘가치동행 프로젝트’도 선포했다.

인 이사장은 “소진공의 사업은 방향성과 목적성이 분명해야 한다. 목적에 맞는 과정이나 시스템이 있느냐도 중요하다. 사업이 끝난 후엔 매출이 늘었느냐, 자생력이 올라갔느냐 등 성과물도 반드시 남아야 한다. 공단의 사업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생태적 가치 연구 및 홍보’

는 5대 기관혁신과제 중 1순위에 뒀다.

이외에 ▲현장중심 정책설계 및 참여형 사업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로 누구나 서비스 이용 ▲데이터 기반 평가 체계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조직 신설, CCM(고객중심경영), ISO 인증 등 ESG 경영도 5대 과제에 포함됐다.

인 이사장은 취임 후 3개월 여 동안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찾아 40회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책을 점검했다. 22일에는 지난 4월 말 골목형상점가로 처음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41회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 이사장은 현장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한 고객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통협의체 ‘소통마루’를 출범하는 등 현장 중심 정책체계를 강화해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홍대에 국내최대 ‘스타트업 허브’ 문 열어

중기부,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
AI·뷰티·콘텐츠 스타트업 입주
韓 “세계 잇는 혁신 플랫폼 지원”

서울 홍대입구역 사거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허브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이 문을 열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오전 서울 홍대 인근에 조성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Seoul)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SVC Seoul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과 국내의 기업, 대학, 투자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조성한 창업 거점이다. 특히 젊은 창의성과

글로벌 문화가 공존하는 홍대 지역에 위치해 인공지능(AI), 뷰티·패션, 콘텐츠·문화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SVC Seoul에는 현재 해외 진출 가능성과 혁신성을 갖춘 관련 분야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엔틀러(Antler), 쇼록 파트너스(Shorooq Partners) 등 해외 투자자와의 투자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해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기업 간 협업, 투자 연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기업 성장 지원), 해외 진출 지원, 교류 행사 등을

상시 운영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 혁신은 연결의 힘에서 시작된다”며 “SVC Seoul이 사람과 기업, 기술과 투자,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창의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이 결합된다면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며 “SVC Seoul이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LG이노텍 데이터·센싱기술 결합 자율주행 고도화 추진

카카오모빌리티가 LG이노텍과 협력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데이터 수집 인프라와 고정밀 센싱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일 LG이노텍과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데이터 수집 체계와 LG이노텍의 고정밀 센싱 기술을 결합해 대규모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LG이노텍은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모듈을 통합한 자율주행 센싱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과 학습, 배포 과정을 자동화한 ‘인공지능 데이터 파이프라인’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국수·냉면 대기업 진입 5년 더 제한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의결
2031년 5월까지 인수·개시·확장 제한

국수와 냉면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대기업은 2031년 5월 26일까지 국수·냉면 제조 분야에서 새로 사업체를 열거나 인수, 기존 사업 확장을 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수·냉면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최초로 도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업종에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영세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경영활동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지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됐다.

올해 심의위원회에선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대상 업종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국수 중 건면·생면, 냉면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각각 한정했다. 또 대기업 등이 수출, 가점간 편식(HMR) 등을 위해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 등의 출하량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되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의 생산·판매는 무제한 승인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 등의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 기준으로 직접생산 110%, 중소기업 OEM 130% 이내까지 생산·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호텔 스위트룸을 집 안으로”

비렉스 스위트 호텔 프레임 선배
호텔형 월패널·투매트리스 구조 적용
조명·수납·충전 기능으로 실용성 강화

수면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호텔의 편안함, 안락함을 집에서 누리려는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면서 ‘호텔형 침실 인테리어’가 수면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호텔식 프레임은 시각적 만족감과 실용성을 모두 제공하며 후수를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20일 코웨이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비렉스(BEREX) 스위트 호텔 프레임’은 이러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다. 호텔 스타일로 벽면을 채우는 월패널과 매트리스를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투매트리스’ 구조를 통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뿐 아니라 최적의 사용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은 박스 스프링 구조의 파운데이션이 상단의 매트리스를 탄탄하게 지지하는 ‘투매트리스’ 구조로 안정적인 지지력을 제공한다. 매트리스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면 환경을 구현한다.

비렉스 스위트 호텔 프레임은 월패널을 싱글(1개), 듀얼(2개), 트리플(3개)



코웨이 비렉스 스위트 호텔 프레임 ‘뉴트럴 베이지 트리플 패널’.

등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해 호텔형 침실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침대 양 옆이나 트윈 베드 사이 등 원하는 위치에 월패널을 배치할 수 있어 공간과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차분한 패브릭이 적용된 멀티패널은 선반형 구조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배치할 수 있으며, 월넛 컬러의 우드 패널은 서랍형 구조로 주변 물건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다. 두 패널 모두 3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한 조명을 탑재해 공간을 은은하게 밝혀주며, 하단의 충전포트를 통해 전자기기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쿠션형 헤드보드로 볼륨감과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목재의 깊이 있는 색상과 질감을 재현한 우드 몰딩 마감의 파운데이션 하부로 호텔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김승호 기자

NC AI, 생성형 AI ‘배키 커머스’ 공개

상품사진 기반 콘텐츠 제작 자동화

산업특화 AI 전문기업 NC AI가 상품 사진 한 장만으로 커머스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생성형 AI 솔루션 ‘배키 커머스’를 20일 공개했다. 배키 커머스는 별도의 전문 디자인 툴 없이 클릭과 챗봇 중심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세페이지, 배너, 썸네일, 홍보

영상 등을 자동 제작하는 서비스다. NC AI는 이를 통해 기존 커머스 콘텐츠 제작 환경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NC AI는 패션 분야를 시작으로 뷰티, 식품, 건강, 전자기기 등 산업별 특화 AI 모델을 구축해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